

“신당, 중도혁신 지향... 전 지역에 총선후보 내지 않겠나”

박준영 탈당...신당 움직임 본격화

5인 회동 교감후 '선도 탈당'

새정치 '연쇄 탈당' 후폭풍 촉각

당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16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은 신당 및 탈당론 등으로 술렁거리던 새정치민주연합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.

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직자 출신 당원 100여명의 집단탈당 선언에 이어 호남의 3선 도지사 출신 당 중진 인사들의 탈당은 현재의 정치적 무게감을 떠나 향후 정치적 지형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.

더욱이 박 전 지사와 그동안 신당 논의를 같이해 온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탈당이 신당 창당과 야권 재편으로 이어져 정치적 박빙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.

박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탈당 인사에 대해 “전혀 모르겠다”며 향후 거취와 관련, “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 조금이나마 밀거름이 되겠다”고 말했다.

그는 신당의 지향 가치에 대해 “실사구시로 가는 방향일 것”이라며 “중도혁신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평화로운 희망을 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한, “신당이 이뤄지면 (총선 때) 전 지역에서 (후보를)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. 그렇게 믿고 있다”며 직접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“검토해 보겠다”고 답했다. 지난 9일 탈당한 당직자 출신 당원들과의 교감설에 대해선 “이전 교환은 없었다”고 선을 그었다.

이 같이 박 전 지사가 탈당 및 신당 창당을 논의하는 주변 인사들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상당수의 인사를 만나면서 야권 재편을 논의

한 것으로 알려져 탈당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. 'DJ맨'으로, 중랑급 인사인 박 전 지사의 '선도 탈당'으로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동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. 추가적인 탈당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되는 이유다.

앞서 박 전 지사는 지난 8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정대철 상임고문, 정균환 전 의원, 박광대 전 광주시장과 '5인 회동'을 갖는 등 이들과 신당 문제에 대해 교감해 왔다. 김효석 전 의원 등과 긴밀히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로서는 '태풍의 눈'과 같은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탈당파·신당파 그룹은 타이밍을 재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. 무엇보다 현역 의원이 결행할 경우 충격파의 크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. 당 안팎에서 현역의원 탈당자 '1호'로 거론되고 있는 박주선 의원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혁신안의 내용을 전제로 했지만 탈당 및 신당 참여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와 무소속 전정배 의원의 기성 정치인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을 태세여서 문재인 대표나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특단의 조치 없는 한 탈당 분위기가 쉬 가라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

당 주변에서 당 혁신안 발표 스케줄에 맞춰 9월 원내교섭단체 구축을 목표로 한 집단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'거사설'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.

현재 신당 추진 움직임은 '전정배 세력'을 포함, 몇 갈래로 나뉘어 있다. 일단 각 신당그룹은 각개약전하며 파이 키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계속 각자도생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'수렴'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. '비노'가 이들 신당파의 교집합이다.

한 인사는 “신당파의 공동된 문제의식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당을 장악한 구조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”이라고 전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



새정치민주연합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.

/연합뉴스

“새누리 잔칫집인데...” 새정치 뒤숭숭

朴 대통령·與지도부 회동날

박준영 前지사 탈당 어수선

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일인 16일 공교롭게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을 선언하자 작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. 대통령과 여당이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야당은 신당·분당론이 본격화되고 있다.

실제 이날 새정치연합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. 박 전 지사의 탈당소식에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“저쪽은 잔칫집인데 이쪽은 초상집”이라는 하소연이 나왔다.

문재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한 의견을 묻자 “혁신에 전념하며 국정원 사찰 문제에 대응할 때다.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다”라고 말을 극도로 아꼈다.

어수선한 상황을 의식한 듯 문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회동에 대한 반응도 삼갔다. 여야지도부 회동 제안에 “의논해 보겠다”고만 했고,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“나중에 당의 입장으로 말하겠다”고 말했다.

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회동

과 관련, “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할 말은 하는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”고 평가절하했다. 여권의 화해 무드를 두고도 “갈등을 지우려는 연출된 웃음”이라고 비판했다.

한편 3번의 전남지사를 역임한 박준영 전 지사의 탈당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“(박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)비판적 여론이 대다수다. 하지만 굳이 성명은 내지 않기로 했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천정배 “새정치에 훌륭한 의원들 많다”

신당 창당 등 독자세력화 기성 정치인 합류 배제 안해

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6일 신당 창당을 포함한 독자세력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기성 정치인의 합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이는 이날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의 새정치연합 탈당과 함께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신당 창당 과정에서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‘신동호의 시선집중’에 나와 “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”며 “그러나 기존의 인물 중에서도 시대정신을 공유할 인물들이 있다. 기성정치인은 무조건 안 된다”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. 이어 “새정치연합의 130명 의원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”며 “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”고 말했다. 그는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지냐는 질문에는 “두루두루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”고 답했다.

다만, 천 의원은 “제 관심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온통 쏠려있다”며 “국민들 사이에 신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, 저도 고민하며 구상하고 있다. 그 주역이 될 새로운 인물들을 폭넓게 만나



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 하지만, 천 의원은 이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연합 탈당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“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, 예상 외의 일”이라면서 “선거 때 저를 도와줘 만난 적은 있지만 탈당이나 신당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”고 말했다.

박주선 의원 등 박 전 지사와 가까운 인물들이 추가 탈당하리라는 예상에는 “소문인 것 같고 실제 탈당을 할지는 모르겠다. 더구나 현역 의원이 탈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”이라고 말했다. 이들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“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니 말할 수가 없다”고 했다.

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“사무총장제 폐지는 10여년 전에도 해봤는데 계파 패권주의 극복과의 관련성은 모르겠다”고 비판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공무원 월급 얼마?...임용 첫 기본급 5급 218만원 9급 128만원

인사혁신처 ‘공무원 통계연보’

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받고 있는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.

인사혁신처가 16일 발간한 ‘국가공무원 통계연보’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 첫 임용됐을 때 받는 기본급은 월 218만원이며, 7급은 161만원, 9급은 128만원으로 나타났다.

물론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늘어난다.

1급 공무원(교위공무원 가급)까지 승진하면

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. 또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 공무원은 622만원, 치안정감은 60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9호봉으로 임용이 되는데, 기본급은 177만원이다. 교원 가운데 가장 호봉이 높은 40호봉의 기본급은 468만원이다.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181만~507만원의 분포를 보여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원보다 기본급 수준이 높

은 것으로 조사됐다.

군인의 경우 대장이 725만원, 중장이 712만원, 소장이 512만원을 받았다.

특히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5년 민간 임금의 93.1%까지 근접했으나, 지난해에는 84.3%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는 2308명으로 집계됐다. 아울러 지난해 총 8563명이 신규 채용됐는데 공개채용은 3985명, 경력채용은 4579명이었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3.26%까지 늘었다. /연합뉴스

밝은광주안과 의원

라식 vs 라섹

라식 수술
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

라섹 수술
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

◎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.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1566-9988
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

진료내역: 소아안과 / 라식 / 라섹 / ICL / 백내장 / 녹내장 / 망막 / 눈성형 / 노안

밝은광주안과

시열병원 보건의료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

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-중-68156호

아이소망

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체외수정기술 |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| 습관성 유산 · 종합건강검진센터

www.clwhivf.com | www.시열병원.com ☎(062)368-1700